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Youths and Adults on Community Safety

- A Case from a District in South Korea -

Jin Hee Son⁺

Department of Youth Coaching & Counseling,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Jongno Biz-Well 23, Samil-daero 30-gil, Jongno-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practical tasks which young people can perform to create a safe community. To this end, it conducted a survey on recognition and awareness on community safety among adults and youths residing in a district in South Korea during October 2019. The data collected from 2,544 adolescents and 364 adul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ults recognized that the community was not safe for the youths, more seriously than did the youths themselves. Female youths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 issue of security in a community than male youths. Second, both adults and youths recognized home as the most secure but traffic safety as the most vulnerable. Third, both adults and youths were most aware of a safety net for helping them to cope with school violence. Fourth,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among youths was higher than that in adults. Some suggestions for community safety in this study include enhancing community environment., expanding support for female youths, reinforcing transportation safety, promoting a community safety net, and offering safety education to improve safety awareness.

Key words: community, safe, safety awareness

1. 서론

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 시기의 경험이 인격성숙과 정신건강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청소년이 스스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Hong, 2013).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UNICEF, 2004). 또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

⁺ Corresponding author: Jin Hee Son, Tel. +82-2-708-7814, Fax. +82-2-708-7755, e-mail. ssony@mail.kcu.ac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UNICEF, 2005; Hong, 2013 quotation).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위협과 위협 속에서(Bauman, 2000),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조직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과 재난관리의 결함 등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Bae & Park, 2014; Shin & Park, 2015; Yeo & Lee, 2014). 안전과 위협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안전관리체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의 불신감이 조성되고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게 되어 결국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된다(Kim & Kim, 2015).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안전문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Sung & Seo, 2017).

지역사회는 가정, 또래 집단, 교육환경과 더불어 청소년의 주된 사회 환경이다. 신뢰와 호혜성, 친밀한 네트워크, 사회참여 등이 지원되는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비행과 문제행동을 예방한다. 특히,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ung, 2014; Kim & Lee, 2019; Seo, 2013).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이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부담해야 할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잠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정, 학교 등의 생활환경에서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생활을 실천하며 안전문화 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Kim, 2018). 그러나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관 주도

적인 활동과 정보의 제공은 현존하는 위협과 안전에 대한 현장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Cho, 2019). 정부차원의 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각 지방 및 지역단위 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재정의 부족으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안전과 관련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성인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안전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과 성인의 안전의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안전과 사회 안전

현대 사회 구성원들은 Well-being과 삶의 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이다(Lee & Jang, 2015). Maslow의 욕구 단계이론에서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2단계에 해당하는 욕구로서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Lee & Jang, 2015).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와 위협에서 보호되는 개념을 의미하는 안전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정의된 안전은 위협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즉, 위협, 사고, 재난, 위기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특히, 안전은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나 인사 사고와 같은 재해로부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한다(Oh & Oh, 2017).

세계인권선언의 제22항에서는 사회 안전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특히,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각국의 조력과 자원에 따라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UN, 1948). 세계인권선언에서 사회 안전은 인적, 물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성을 지닌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이 보호되는 안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람으로서 품격의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Oh & Oh, 2017). 사회 안전에 대한 개념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에서 다시 제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음식, 건강, 환경, 공동체 안전, 정치적 안전, 공포에 대한 안전, 결핍에 대한 자유를 사회 안전으로 정의하였다(Oh & Oh, 2017). 또한 유럽공동체(EU)는 1997년에서 선포한 공동체 헌장에서 사회 안전을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지속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잠재노동력 개발, 배제의 극복이라고 규정하였다(Cho, *et. al.*, 2016). 위와 같이 사회 안전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안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사회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Oh, *et. al.*, 2017).

2. 안전의식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1999)

는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서 안전행동 형성에 기여하는 습관, 태도 및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2014)은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안전의식형성의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Cho, *et. al.*, 2016). 이를 바탕으로 안전의식의 개념을 정리하면 안전의식이란 안전문화와 안전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가 가지는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습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Sung & Seo, 2017). 안전의식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조건이다(Cho, *et. al.*, 2016). 즉, 개인적 측면의 경우, 안전에 관한 개인의 지식, 태도, 습관, 안전문화와 안전 분위기, 안전에 관한 지역문화, 지역적인 특성, 지역의 기후와 토지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2014)에서는 안전의식수준이 지식, 태도, 행동의 순서대로 발달한다고 가정하였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수준을 지식이라 하고, 획득한 지식을 통해 위기상황을 접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태도라고 한다(Sung & Seo, 2017).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안전한 동작과 활동을 하게 되어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행동이라고 한다(Cho, *et. al.*, 2016). Sung & Seo(2017)는 안전의식을 안전사고 대응지식, 안전민감성, 안전사고 대응심리력, 안전사고 상황판단력, 안전사고 문제대응역량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안전사고 대응지식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상황, 절차,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안전사고 대응 가치 지향은 일상에서 안전문화를 추구하고 유사시를 대비하려는 기술 및 태도를 의미한다. 안전사고 대응 심리는 일상에서 규범을 지키며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태도를 의미한다(Sung & Seo, 2017). 안전사고 대응 문제해결은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해결을 하고자 마련된 대안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Table 1. Safety consciousness sub-factors

Division	Sub-factor	
Safety accident response knowledge	Situational knowledge	Knowledge of the outcome or signs of an accident and basic procedures required to solve problems in the event of a safety accident.
	Tool utilization knowledge	Basic knowledge of the use of safety tools.
Safety accident response value orientation	Information gathering power	Technology for collecting information related to safety accidents (ex. evacuation charts, safety regulations, etc.).
	Risk sensitivity	An attitude to observe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refully and to avoid danger actively.
	Recognizing the safety importance	The attitude of placing safety before the value of life.
Safety accident response hearing	Normative compliance	An attitude to abide by established safety rules and procedures under the strain.
	Situational optimism	An active attitude to prevent or resolve an accident and to persevere in difficult situations and overcome failures or setbacks.
Troubleshooting in response to safety accidents	Situation determination power	A technique for making timely and prioritized judgments of analyzed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blem-response	Technology that solves problems according to safety procedures or utilizes knowledge of safety tools bowing

을 의미한다(Sung & Seo, 2017).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조건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과 분리성을 포함하는 물리적 지리성과 지역적인 경계를 가지며, 사회적, 문화적인 동질성, 합의성, 자조성을 지닌다. 또한 다른 형태의 집단행위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Oh & Park, 2018). 동일한 지리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공통적인 유대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Do, 2008). 최근 지역사회는 기존의 지리적 범주와 고유성을 넘어서는 심리정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Yang, 2017). Anderson & Cater(1990)는 지역사회를 공간적인 영역이나 기능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조직체로 보았다.

지역사회는 가정, 또래집단, 학교환경과 함께 청소년의 주된 사회 환경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는 가족과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의 접촉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가족의 영향보다 사회의 영향을 더

욱 크게 받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Hwang, 2011).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은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던 지역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역의 높은 실업률, 문화적 이질성, 한부모 가족비율, 인구 이동률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을 일으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Sampson, *et. al.*, 1997). 또한 지역의 무질서한 환경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다(Kim & Lee, 2018), 주민 이동이 잦고 이웃 간에 교류도 없고 단절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많다(Putnam, 1993). 반면,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청소년이 인지하는 지역사회 안전감 등은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ooks-Gunn, *et. al.*, 1993; Wilson, 1997). 이처럼 지역사회는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위험요인 혹은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중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Yang, 2017).

본 연구는 S군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S군은 충청남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1991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 중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9~18세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6.75%이고,

19~24세 인구는 5.29%이다. 반면 60대 이상의 노령인구는 40%이상으로 완전한 노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S군의 2019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반면 청소년을 위한 교육(0.85%)과 공공질서 및 안전(0.81%)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프 등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여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Kim & Lee, 2013; Seo & Lee, 2012), 청소년과 관련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S군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인식과 안전의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및 조사방법

1) 조사도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인식비교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현황 및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성인과 청소년용으로 개발되었다.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인식, 지역사회 위기상황에서의 안전망 인식과 기대, 안전의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항목 및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전의식척도는 Sung & Seo (2017)가 개발한 청소년 안전사고 대응역량척도이다. 안전사고 대응역량 척도는 안전사고 대응지식역량(안전사고 상황지식, 안전사고 도구활용지식), 안전사고 대응가치지향(안전사고 정보 수집력, 안전사고 위험민감성, 안전 중요성 인식), 안전사고 대응심리(상황 낙관성, 규범 준수성), 안전사고 대응문제해결(상황 판단력, 문제대응력)등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척도가 청소년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성인에게 사용된 척도는 연구자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아동청소년학 및 사회복지학 박사 2인과 함께 성인에게 적합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뢰도는 .8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6이었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자료조사는 청소년 2,600명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S군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들이 담당하였다. 연구의 원활한 설문지 배부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학교, 지역축제를 통해 편의포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청소년 2,544명, 성인 364명이었다.

SPSS WIN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전의식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들의 인식도와 안전의식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인과 청소년 집단의 지역사회 안전 인식과 안전 의식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2. Scale

Division	Number of questions
Gender, School year, (With or without children)	2(3)
Youth residence safety level	1
Environmental safety	4
Recognizing the crisis response method and expectations of support	5
Safety consciousness	42
Total	54(55)

2. 조사대상

본 연구조사의 응답자들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청소년응답자는 남자청소년이 1,378명(54.4%)이었고, 여자청소년은 1,154명(45.6%)으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약간 많았다. 교급에 따른 분포는 초등학생이 808명(31.9%), 중학생 592명(23.4%), 고등학생 1,135명(44.8%)으로 고등학생 응답자가 많았다.

성인 응답자 364명 중에서는 남자가 82명(23.1%)이었고 여자가 273명(76.9%)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94명(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93명(26.3%), 50대 78명(22.0%), 30대 59명(16.7%), 20대가 30명(8.5%)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녀가 '있다'라는 응답이 123명(33.8%)이었고 청소년 자녀가 '없다'는 226명(62.1%)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Responses n(%)	
Youth (2,544)	Gender	Male	1,378(54.2)
		Female	1,154(45.4)
		No response	12(0.5)
	School	Elementary	808(31.8)
		Middle school	592(23.3)
		High school	1,135(44.6)
No response		9(0.4)	
Gender	Male	82(22.5)	
	Female	273(75.0)	
	No response	9(2.5)	
Adult (364)	Age	20s	30(8.2)
		30s	59(16.2)
		40s	94(25.8)
		50s	78(21.4)
		Over 60s	93(25.5)
		No response	10(2.7)
	With or without children	Yes	123(33.8)
No		226(62.1)	
No response		15(4.1)	

IV. 연구결과

1. 지역사회 청소년 거주 안전에 대한 인식

청소년에게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한가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81.3%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 & 안전한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안정하다(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 위험하다)는 응답은 18.7%로 나타났다.

Table 4. Community safety of youth

Division	Responses(%)	Safety
Very safe	334(13.3)	Safe (81.3%)
Safe	1,704(68.0)	
Not safe	389(15.6)	Not safe (18.7%)
Dangers	78(3.1)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성별과 교급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자청소년의 안전인식은 2.97(sd=.670)이었고 여자청소년은 2.85(sd=.589)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t=4.807, p<.001$). 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3.05(sd=.56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94(sd=.620), 고등학생은 2.81(sd=.677)로 나타났다($F=33.918, p<.001$).

Table 5. Community safe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Division		m(sd)	t/F	Scheffe
Gender	male	2.97(.670)	4.807***	-
	Female	2.85(.589)		
School	Elementary(a)	3.05(.560)	33.918***	a>b>c
	Middle school(b)	2.94(.620)		
	High school(c)	2.81(.677)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68.4%의 성인은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 & 안전한 편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31.6%는 불안정하다(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 위험하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6>).

성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한 지역사회 청소년 거주 안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6. Community safety of youth

Division	Responses(%)	Safety
Very safe	15(4.2)	Safe (68.4%)
Safe	230(64.2)	
Not safe	103(28.8)	Not safe (31.6%)
Dangers	10(2.8)	

청소년과 성인이 인식한 청소년의 지역사회 거주 안전을 4점 만점으로 확인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청소년은 2.92(sd=.637)였고 성인은 2.70(sd=.593)으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높았다. 즉, 성인들이 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인들이 청소년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실제 안전 관련 사고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다.

Table 7. Community safety between adults and youth

Division	m(sd)	t
Youth	2.92(.637)	6.090***
Adult	2.70(.593)	

*p<.05 **p<.01 ***p<.001

2. 주변 환경 안전에 대한 인식

교통, 학교·교실, 가정, 여가·놀이, 근로·알바 안전의 영역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주변 환경이 안전한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Table 8>). 청소년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가족관계, 주거환경, 위생 등을 확인한 가정안전(m=3.37, sd=.665)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 무단횡단, 신호위반, 교통지도 부재, 통학버스

안전 등으로 구성된 교통영역(m=2.70, sd=.785)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성인들도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가정안전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m=2.75, sd=.608), 교통영역(m=2.40, sd=.711)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본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교통, 학교·교실, 가정, 여가·놀이, 근로·알바 안전의 영역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안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Table 8. Perception of ambient environmental safety

Division	youth m(sd)	adult m(sd)	t
traffic safety	2.70(.785)	2.40(.711)	6.978***
School-classroom	3.03(.676)	2.57(.674)	12.088***
home	3.37(.665)	2.75(.608)	16.374***
leisure- activities	2.90(.771)	2.42(.694)	11.033***
work a part-time job	2.97(.678)	2.50(.667)	12.125***

*p<.05 **p<.01 ***p<.001

3. 지역사회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인지 및 지원에 대한 기대

청소년에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와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곳을 아는가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85.5%), 위험을 알릴 곳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방임을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가 77.6%로 나타났고 우울 및 절망으로 힘든 친구가 있을 때 74.8%, 인터넷 중독인 친구가 있을 때 67.8%, 가출하여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을 때 68.0%의 순서로 나타났다. 만일 도움을 요청하면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2.87(sd=.736)로 가장 높았고, 우울 및 절망, 가출, 가정폭력 및 방임, 인터넷 중독의 순서로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성인들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이 있을 때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70.8%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방임을 당하는 청소년이 있을 때는

Table 9. Recognizing the crisis response method and expectations of support

n(%)

Division	Support request agency			
	Youth		Adult	
	I know	I don't know	I know	I don't know
Domestic violence and neglect	1,862(77.6)	536(22.4)	213(66.4)	108(33.6)
School violence	2,031(85.5)	345(14.5)	226(70.8)	93(29.2)
Internet addiction	1,613(67.8)	765(32.2)	166(52.0)	153(48.0)
Disappearance from home	1,607(68.0)	755(32.0)	186(58.5)	132(41.5)
Depression and despair	1,767(74.8)	596(25.2)	182(57.4)	135(42.6)

66.4%, 가출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을 때 58.5%, 우울 및 절망으로 힘든 청소년이 있을 때 57.4%, 인터넷 중독인 청소년이 있을 때 52.0%의 순서로 나타났다. 만일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가출, 우울 및 절망, 가정폭력 및 방입, 인터넷 중독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인들은 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 안전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안전망형성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성인의 인지도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낮으므로, 성인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인지하고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긍정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관리와 홍보가 요구된다.

4. 안전의식

1) 청소년과 성인의 안전의식

청소년과 성인의 안전의식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청소년의 안전의식 평균은 2.97(sd=.436)이었다. 안전의식 하위요인 중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태도와 안전을 삶의 가치 중에 우선하는 태도인 안전민감성이 3.10(sd=.463)으로 가장 높았고, 정해진 안전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전도구 활용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인 안전사고 문제 대응역량이 2.88(sd=.538)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이 응답한 안전의식 하위유형의 평균점수 순위를 살펴보면 안전민감성, 안전사고 대응지식, 안전사고 상황판단력, 안전사고 심리력, 안전사고 문제 대응역량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안전의식 전체 평균점수는 2.81점(sd=.340)이었다. 안전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 중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태도와 안전을 삶의 가치 중에 우선하는 태도인 안전민감성이 3.15(sd=.420)로 높았고, 정해진 안전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전도구 활용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인 안전사고 문제 대응역량(m=2.65, sd=.474)과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대응력과 안전의식에 대한 행동변화 목표로 구성된 안

Table 10. Safety consciousness for youth and adults

Division	youth m(sd)	adult m(sd)	t
A sense of safety	2.97(.436)	2.81(.340)	21.521***
Safety accident response knowledge	2.96(.514)	2.74(.451)	10.710***
Safety sensitivity	3.10(.463)	3.15(.420)	6.854***
Psychological ability to respond to safety accidents	2.91(.528)	2.77(.443)	4.027***
Ability to determine the safety accident situation	2.95(.528)	2.66(.438)	4.648***
Ability to respond to safety accidents	2.88(.538)	2.65(.474)	4.607***

*p<.05 **p<.01 ***p<.001

전사고 문제대응역량(m=2.65, sd=.474)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청소년의 안전의식은 Sung & Seo(2017)가 청소년 안전사고 대응역량 진단도구 문항을 개발하면서 진행한 조사결과(m=2.96, sd=.51)보다 높았다. 이는 해당 척도가 개발된 2017년에 비해 청소년안전과 관련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예방 활동과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진행된 S군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 아카데미와(가칭)’와 ‘안전캠프’ 등을 운영하여 안전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성별에 따르면 남자청소년(m=2.99, sd=.456)이 여자청소년(m=2.94, sd=.409)보다 안전의식이 높았다(t=2.807, p<.001).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3.03, sd=.458)의 안전의식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m=2.97, sd=.417), 초등학생(m=2.92, sd=.440)의 순서로 나타났다(f=10.789).

Table 11.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Division		m(sd)	t/F	Scheffe
Gender	Male	2.99(.456)	2.807**	b>c>a
	Female	2.94(.409)		
School	Elementary(a)	2.92(.440)	10.789***	
	Middle school(b)	3.03(.458)		
	High school(c)	2.97(.417)		

*p<.05 **p<.01 ***p<.001

성인의 안전의식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남자(m=2.96, sd=.370)가 여자(m=2.77, sd=.324)보다 안전의식이 높았다(t=4.023, p<.001). 20대(m=2.93, sd=.374)의 안전의식이 가장 높았고, 40대(m=2.73, sd=.359)가 가장 낮았다(F=2.795, p<.001).

Table 12. Safe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dults

Division		m(sd)	t/F
Gender	Male	2.96(.370)	4.023***
	Female	2.77(.324)	
Age	20s	2.93(.374)	2.795*
	30s	2.79(.335)	
	40s	2.73(.359)	
	50s	2.87(.336)	
	Over 60s	2.83(.287)	
With or without children	Yes	2.77(.361)	-1.482
	No	2.83(.330)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안전할 권리는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의 안전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소년과 성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을 확인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방안을 제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거주 안전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은 모두 아동학대, 가정폭력, 가족관계, 주거환경, 위생 등의 가정안전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무단횡단, 신호위반, 교통지도 부재, 통학버스 안전 등으로 구성된 교통영역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과 성인은 모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나 청소년이 있을 때 위험을 알릴 곳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중독이 가장 적었다.

넷째, 청소년의 안전의식 평균은 2.97(sd=.436)이었고, 성인은 2.81(sd=.340)이었다. 안전의식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태도와 안전을 삶의 가치 중에 우선하는 태도인 안전민감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정해진 안전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전도구 활용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인 안전사고 문제 대응역량이 가장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짧은 기간에 고도의 산업화·도시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인구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사회의 쇠퇴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역 환경 개선 초기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자청소년을 위한 안전환경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높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안전사고, 폭력 및 범죄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변 환경 안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자청소년이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주변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과 전문인력 확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영역에 대한 안전을 보강하여야 한다. 최

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법안이 통과되었다. 거리 CCTV 설치, 학교 앞 차량 속도 제한,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의 도입과 함께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후 위험성에 대한 자각을 하고 대피 방안을 체험하고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역량강화 중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과 방임, 인터넷 중독, 가출, 우울 및 절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처 및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관리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사업은 사회안전망 구축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의 어려움을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안내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인들은 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 안전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안전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줄 지역주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인지하고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긍정적인 신뢰를 형

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관리와 홍보가 요구된다.

다섯째,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부를 주축으로 안전과목 신설 및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ttp://www.mois.go.kr/frt/bs/type010>). 안전문화와 안전가치관을 정착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비롯해 국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외적으로도 안전한 국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위상을 확립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후 위험성에 대한 자각을 하고 대피 방안을 체험하고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역량강화 중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인지 및 지원에 대한 기대에 대한 내용을 “안다”와 “모른다”로 측정하여 단편적인 인지도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와 인지지원에 대해 인지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은 S군에 거주하는 성인과 청소년들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 자료에서 확인된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인식과 안전의식은 다른 지

역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 서천군 아동·청소년 안전환경 의식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임.

References

- Anderson, R. and I. Carter. 1990.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4th ed. New York: Aldine De Gruyter.
- Bae, Jae Hyung and Young Won Park. 2014. An Exploration Study on Redesig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GRI Review*. 16(2): 319-341.
- Bauman, Z. 2000. Social Issues of Law and Order.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2): 205-221.
- Brooks-Gunn, J., G. J. Duncan, P. K. Klebanov, and N. Sealand. 1993. Do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2): 353-395.
- Cho, A Mi, Jin Sook Lee, and Young Bae Kang. 201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afety Consciousness Scale of the Youth Activity for Youth Workers. *Journal of Youth Welfare*. 18(3): 151-170.
- Do, Gie Bong. 2008. Moderating Effect of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on the Community Factor Influencing School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0(4): 63-83.
- Hong, Seung Ae and Jae Yeon Lee.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ssessment for the Child Friendly C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4): 83-104.
- Hwang, Young Eun. 2011. The Effects of Reg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th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aster's Degree. Chuang-ang University.
- Jung, Yoon-Ok.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nd Neighborhood Disorder on Elementary Student's Mental Health. Ph.D. Thesis.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 Kim, Chan Sun. 2018. Innovative Grand Design of the Disaster

- Management System. 2017 Proceedings of the 11th ICCEM & Local Resilience Forum. 649-653.
- Kim, Min Soo and Hyun Ji Lee. 2019. The Effect of Korean Adolescents' Community Social Capital on Self-esteem.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8(2): 153-173.
- Kim, Won Jung and Young Woo Lee. 2013. Plans on Reforming the Police for Social Safety. *European Constitution*. 14: 307-330.
- Kim, Yeong Nam and Chan Sun Kim. 2015. Relat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Community Unity and Local Government Trust.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42: 7-36.
- Kum, Yu Na and Ge Chang Lee. 2018. A Multilevel Analysis of Effect of Community Safety on Depression. *The Women's Studies*. 99(4): 5-30.
- Lee, Yu Mi and Hyun Seok Jang. 2015.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Local Community.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9(1): 159-186.
- Oh, Hye Sung and Yoon Sung Oh. 2017.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Community Safety: Focusing on Foreigners Crime. *Korean Journal of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6(4): 75-89.
- Oh, Yung Jung and Jung Hun Park. 2018.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Role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Members in Jeju Provi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6): 747-762.
- Putnam, R. D., R. Leonardi, and R. Y. Nanetti.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S. Raudenbush, and F. Earls. 1997. Neighborhood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eo, Jae Ho and Seung Jong Lee.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Citizen's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Risk. *Crisisonomy*. 8(3): 1-20.
- Seo, Jeong A. 2013.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Youth's Schoo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1): 135-164.
- Shin, Sang Min and Hee Kyung Park. 2015. Notes on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for Resilient Response to Disaste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8(2): 11-20.
- Sung, Eun Mo and Don Gin Seo.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ment Tools for Youth Safety Competenc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4(4): 41-67.
- UNICEF. 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05.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5: Childhood under Treat*.
- Wilson, J. D. 1997. Property Taxation, Congestion, and Local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4(2): 201-217.
- Yang, Sook Ja. 2017. The Impact of Social Exclusion on Hostility "Multicultural Youths". Ph.D. Thesis. Silla University.
- Yeo, Cha Min and Seok Hwan Lee. 2014. The Effect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6(4): 665-685.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홍승애, 이재연. 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4(4): 83-104.
- 교육부. 2014.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연구보고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boardSeq=57531&lev=0&m=0201>
- 김민수, 이현지. 2019. 청소년이 인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연구*. 8(2): 153-173.
- 김영남, 김찬선. 2015. 광주지역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 *시큐리티연구*. 42: 7-36.
- 김원중, 이영우. 2013. 사회안전을 위한 경찰 변화 방안. *유럽헌법연구*. 14: 307-330.
- 김유나, 이계창. 2018. 지역사회안전이 여성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여성연구*. 99(4): 5-30.
- 김찬선. 2018. 국민안전교육인증제 도입 필요성 탐색.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세미나발표논문집*. 649-653.
- 도기봉. 2008. 지역사회요인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4): 63-83.
- 배재현, 박영원. 2014.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재설계에 관한 탐색적 논의. *GRI연구논총*. 16(2): 319-341.
- 서재호, 이승중. 2012.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20.
- 서정아. 2013.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

-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4(1): 135-164.
- 성은모, 서동인. 2017. 청소년 안전사고 대응역량 개발 및 진단도구 타당화. 미래청소년학회지. 14(4): 41-67.
- 신상민, 박희경. 2015. 지역사회 재난 탄력적 대응 위한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8(2): 11-20.
- 양숙자. 2017.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여차민, 이석환.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한국행정논집. 26(4): 665-685.
- 오윤정, 박정훈.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할수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9(6): 747-762.
- 오혜성, 오윤성. 2017. 대학생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6(4): 75-89.
- 이유미, 장현석. 2015. 지역사회 안전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9(1): 159-186.
- 정윤옥. 2014. 사회적 자본과 동네무질서가 초등학생 정신보건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조아미, 이진숙, 강영배. 2016.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활동 안전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8(3): 151-170.
- 황영은. 2011.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Received: Jan. 29, 2020 / Revised: Mar. 16, 2020 / Accepted: Mar. 16, 2020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인식비교

- S군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군에 거주하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에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청소년이 2,544명이었고 성인은 364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은 청소년보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은 모두 가정환경이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였고, 교통안전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청소년과 성인은 학교폭력의 안전망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었다. 넷째, 청소년의 안전의식이 성인에 비해 높았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여자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교통영역에 대한 안전을 보강한다. 넷째, 지역사회 안전망을 홍보한다. 다섯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주제어 : 지역사회, 안전, 안전의식

Profiles **Jin Hee Son** : She is a Assistant Professor in the Youth Coaching & Counseling Studies at Soongsil Cyber University.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Youth at risk, Education of humanism, right and participation and Youth safety study. Her main paper is "Youth right(2019), Youth safety(2019)"(ssony@mail.kcu.ac).